

교회 목표

- 1. 천국일꾼을 키우자
 -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 3.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충현

발행인 : 신성종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200 FAX :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1992년도 목회 지침 표어: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주제성구:“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14:23)

미국 성장 교회 연구조사단 파견

21세기를 향한 중장기 성장 계획 수립 위해 당회장 신성종 목사 외 5명 수행

교회는 미국 성장 교회 연구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지난 1월 29일 정기 당회에서 결정하였다.

“21세기를 향한 충현교회 중장기 성장 계획 수립”을 주목적으로 하는 연구 조사단은 2월 1일(토)부터 10일(월)까지 미국 시카고, LA, 밀워키, 위스콘신, 인디애나 지역 등의 성장 교회를 방문하여

① 예배 모범, ② 교육 체제와 운영, ③ 국내외 선교 정책과 운영, ④ 교회 행정 기구 및 운영, 그리고 ⑤ 사회 봉사 활동 등을 연구 조사하며 시찰케 된다.

이번 연구 조사단의 단장은 당회장 신성종 목사이며, 단원은 윤명식 장로(당회서기), 오진국 장로(관리국장), 정하우 장로(기획위원

장), 하대선 장로(행정위원장), 김성관 전도사(당회장 해외 비서)이다. 당회장은 3일(월) 출국하여 7일(금)에 귀국한다.

파견되어 연구 조사하는 단원들의 기대가 크며, 온 성도는 이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줄 것을 요청한다.

기획조정실장에 윤명식 장로 결정

당회는 우리 교회 기획조정실장으로 현 당회서기인 윤명식 장로(58세)를 결정했다.

새로이 선임된 윤명식 기획조정실장은 서울대 약대 출신으로 윤명식 장로

로 제약회사 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본 교회 당회서기로 다년간 봉사해 왔다. 현재 근무 중인 직장 관계를 마무리 하고 늦어도 오는 4월 초에는 본 교회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한편 전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종국 장로는 교회 비서실에서만 근무하게 된다.



윤명식 장로

순천향 병원 원목실 운영 전도위원회에서 후원기로

전도위원회(위원장 최상규 장로)는 서울 순천향병원 원목실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전도 대상은 순천향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직원, 환

자 등 1년에 약 5백명 이상이며, 이들에게 예배 인도, 성경공부 인도, 환자 위로 및 전도, 신우회 구성, 상담, 노래 선교단 운영 등을 하게 된다.

영어예배 설교 담당 켄트 프림로즈 강도사

당회는 영어예배부 설교 담당 교역자로 켄트 프림로즈 강도사를 청빙하기로 허락하였다.

프림로즈 강도사는 영어예배부 설교와 함께 세계 선교 업무도 함께 담당할 계획이다.

수도노회 교직자대회 2월 11일 본 교회당서

수도노회 교직자회는 오는 2월 11일(화) 오전 11시 본 교회당에서 2월 정기 월례회를 개최한다.

이 월례회에는 약 2백여명의 수도노회 지교회 교역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카메라 쏘집



▲농아자들은 영상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다(1월 27~28일 에바다부 겨울수양회).

케직사경회 본 교회서 개최

2월 10일부터 4일간

복음주의적 신학을 전수기 위한 케직사경회가 본 교회 당회의 의결에 따라 오는 2월 10일(월)부터 13일(목)까지 본 교회당에서 개최된다.

동 케직사경회 주강사는 케네스 프라이오 목사(영국)이며, 2월 12일(수) 집회에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사회를 맡고, 실로암찬양대의 찬양이 있게 된다.

세계 선교 사역지 지역권으로 분류기로

세계선교위원회(위원장 남선우 장로)는 종교권 지역 구분인 선교지역을 앞으로는 지역권으로 분류하여 선교 사역을 펴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변경된 지역권 명칭은 북아시아

권, 아프리카권, 유럽권, 남아시아

수화 교육 실시

3월 10일에 개강

에바다부(부장 조인제 장로, 지도 김성운 목사, 부지도 이준우 전도사)는 농아자들의 복음화 및 이에 대한 건강인들의 사명감 고취와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오는 3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에 수화 교육을 실시한다.

수강생들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진행될 이 교육을 위하여 이준우 전도사, 서미영 선생, 김정미 선생이 수고하게 된다.

접수는 2월 2일부터 에바다부 사무실(교육관 115호)과 사무국(교육관 102호)에서 받는다.

알림

본 '주간충현'은 설날 연휴 관계로 인쇄소가 휴무함에 따라 다음 주 2월 9일자는 휴간하고, 2월 16일자로 제151호를 발행합니다.

주간충현 편집국

원고모집

교회출판부는 계간충현 "봉호" 발행을 위하여 다음의 내용으로 원고를 모집해오니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다음

- 원고내용:시, 수필, 전도 체험기, 신앙 간증, 교회 부흥과 성장에 필요한 제언
- 원고매수:2백자 원고지 15매 이내
- 채택된 원고는 계간충현 봉호에 게재하고 기념품을 드립니다.

-계간충현 편집위원회-

충현프리즘

①...최근 일간지 사회면에서 어느 TV 주말 연속극 "사랑이 뭐길래"가 시청률 70퍼센트의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한 것을 보았다.

사랑을 주제로 3대가 펼쳐는 짝짓기 정도의 언어 구사와 보통 시민들의 애환을 결들인 이 연속극이 시청자들의 가슴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다.

어쨌거나 우리가 지

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바보 상자의 일방적 횡포에 의해 무기력해지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재림 예수님에 불원한 장래에 이 땅에 임재하실 때 바보 상자의 연속극에 정신 팔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준비못해 예수님을 맞지 못할까 심히 두렵다.

세상적인 흥미에 치우치다보면 하늘 나가는 여정이 둔탁해질

까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솔직한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한다.

②...공동의회 결정에 따라 우리 교회 당회는 지난 1월 29일 장로 후보들을 배수 공천하였다.

이제 제비뽑기(투표)는 세례 교인들에게 하겠지만 선택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것이다.

모두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 봉사,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이 피택되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충현교회에서 기쁨과 같은 훌륭한 봉사자들이 배출될 것을 기대해본다.

③...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미국 교회 성장 모델을 연구하기 위하여 잠시 해외 나들이를 하게 된다. 돌아오실 때까지 위하여 기도하고, 좋은 연구 실적에 따라 우리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충현강단

신성종 목사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4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계3:14~22)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 교회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계3:14)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아멘이시고 증인이시며 창조의 근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이란 힘 혹은 확고부동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멘이신 예수님은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며, 확고부동하여 언제나 오늘날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라오디게아 지역은 의류 제조업이 발달하였고 은행이 많은, 상업적인 면에 있어서 현재 우리 나라의 명동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역의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부요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부요한 것이 참 부자인가? 중요한 것은 영혼이 부자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부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아니한 사람은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의류업이 발달한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으나 세상 옷을 입고 육체를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적으로는 별거벗었으며 부도덕한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안약”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의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눈을 뜨고 있어야 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계3:19)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내리시는 징계가 있고, 둘째는 예수님 재림 후에 하늘 보좌 앞에서 내리시는 징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후의 징계는 저주로서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을 때에 내리시는 징계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기회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를 당하시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는 비결을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는 말은 그들에게 열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기도할 때도 열심을 내며, 찬양할 때도 열심을 내고,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한국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부자는 영적으로 교만하여 ‘나는 아무것도 필요없어.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은 듣지 않아도 돼.’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가난한 심령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부족하거나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자입니다.

3 예수님의 약속과 축복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계3:21)

승리자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성도들이 많습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교제하는 생활이 필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는 비결은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왕은 그가 죽게 되었을 때 벽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고 하시며 기도의 응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기도는 공기만 울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불지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3:20)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위 신자라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시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다.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한 쪽 다리만 부러진 것을 감사하는가 하면, 자동차는 다 망가졌어도 목숨이 무사한 것을 감사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생활을 하면서 세상 끝날 까지 승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비해놓으신 하늘 보좌에 앉는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계3:22)

이 말씀은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란 영적인 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를 가진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각자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차지도 더웁지도 않은 상태에서 벗어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런 종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벗어나 열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서 충성하시고, 그분의 뜻을 그대로 이루신 주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신데,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말씀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창조자시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확고부동하지 못하고 도무지 충성하는 것이 없으며 참된 증인이 없고 위선자들로 가득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교회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썩고 부패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계3:15)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생활을 보면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뜨거운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기도의 열정이 있는 교회, 사랑의 열기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계3:17)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는 데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또한 라오디게아 지역은 약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생산된 안약 가루를 눈에 넣기만 하면 그 어떤 안질도 고침을 받았습니 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눈 먼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소경에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육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지 못합니다. 둘째는 글을 보면서도 읽지를 못하는 문화적 소경, 즉 문맹자입니다. 셋째는 영적 소경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천국이 있는데도 천국을 보지 못하며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육체적으로 소경이 아닐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분명히 소경이었습니다.

2 예수님의 책망과 권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계3:18)

“흰 옷”이란 의의 세마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지 않은 자는 벌거벗고 다니는 줄 알아야 합니다. 하늘 나라에 가려면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이것을 입어야 수치가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서론

수양회를 위하여 몇 일 밤을 모이고 점검하던 일이 어제 일 같다. 학생들과 함께 수양회를 치르면서 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점검하며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마음편에 새겨 넣게 하려고 식사 시간 때마다 억지로 성경 구절을 외우게 하고 식권을 나누어주곤 하던 일도 생각한다. 조별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을 깊게 다루면서 연관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였다. 수양회의 가장 중요한 시간인 저녁에는 말씀을 듣는 부흥사경회를 통해 은혜를 받았던 일도 생각한다. 부흥사경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은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울음바다를 이루기도 하였다. 한 학생이 회개의 기도를 하자 또 다른 곳에서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왔다. 수양회를 통하여 일평생 잊지 못할 신앙의 체험과 결단을 하면서 사명자로서의 길을 걷게 되는 아이들도 보았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수양회를 정의하고 수양회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수양회는 왜 하는가

한마디로 신앙 생활의 부족한 면을 채우기 위해서이다. 쫓기고 쫓기는 학생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올바른 말씀 교육은 한정되어 있다. 학생들이 1년 동안 배우는 말씀의 양을 통해서도 결코 저들의 신앙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주일 한 시간 정도의 성경 공부, 1년에 52시간, 2년에 104시간, 3년에

●충현논단●

수양회를 다녀와서

조동원 목사
(고등부·출판부 지도)

156시간, 날짜로 하면 2일에서 7일 정도의 시간이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다. 따라서 2박 3일, 3박 4일의 수양회는 일년의 성경 공부와 신앙 생활 성장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간이다. 교회 생활 속에서 부족한 신앙 지식과 신앙 생활 훈련을 보충하기에 참 좋은 시간이다.

2 수양회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한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신앙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수양회를 통하여 그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가 되었고, 지금은 미국에서 한인 목회에 전념하고 있다.

첫째로, 수양회를 통해서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확신있는 공부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고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기쁨이 되는 것이다.

오늘날도 수양회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결코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없다. 둘째로,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된다. 머리로는 믿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믿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런 은혜의 체험이 없이는 즐거운 신앙 생활을 할 수 없다. 항상 무미건조한 삶을 살게 된다.

은혜 체험은 곧 기도 훈련이다. 기도 훈련을 통해 통성기도, 산상기도, 짝기도, 회개기도 등을 실시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게 된다.

셋째로, 성도간의 교제의 삶을 살게 된다. 수양회를 통해서 서로 간의 참모습을 서로 익히게 된다. 그 속에서 이해하게 되고, 더욱 깊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해준다.

3 오늘날 수양회는 어떠한가
한마디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와 섬김의 신앙 생활인 교제가 잘 조화되지 않는 인상을 받았다. 한 쪽에 편중되어 있는 양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양회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교육적 가치가 상실되고 있다. 또한 준비한 모든 것에서부터 너무 습관적인 양태가 많이 비춰지고 있다.

(1) 편중된 프로그램

한쪽에 치중함으로써 수양회 기

간 동안 획일적인 은혜를 요구하게 된다. 은혜받는 다양한 방법이 너무 극소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 쪽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무의미한 기간이 되고 만다. 부족한 면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이것을 채우는 수양회가 지향되어야 한다.

(2) 교육적 가치의 상실

전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성취해야 할 수양회의 목적이 없으므로 일반적 캠프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영성 회복, 지적 성장, 참된 교제, 말씀을 통한 신앙 생활 훈련, 신앙 성숙의 훈련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은 수양회를 위한 준비된 그릇이 없기 때문이다. 바쁘다는 것으로 온전하고도 충분한 준비가 없다. 적어도 수양회를 말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2, 3개월 전에는 장소가 선정되고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 또한 무엇을 함께 나눌 것인가를 한 달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기도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이 기쁨을 준비하고 신앙을 맺을 준비를 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일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되어간다. 인스턴트적인 값싼 은혜를 좋아하고 거

기에 물들어 있다.

(3) 습관적인 수양회

아주 기계적인 수양회가 되고 있다. 영성 회복, 구원의 확신, 말씀의 지적 성장, 신앙 성숙의 훈련이 무시된 프로그램 중심의 습관적인 수양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형식에 치우치다보면 경건의 능력을 찾을 수 없게 된다. 공연히 공기만 진동시키고 바람만 일으키고 은혜가 없는 수양회가 되고 말 것이다.

4 어떻게 수양회를 치르어야 하나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수양회를 통하여 인생의 좌표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목적 의식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일평생 잊지 못할 신앙 체험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롬10:9), 성령 충만의 증거 현상이 되어야 한다(롬8:16). 여러 순서, 즉 말씀 전치, 조별 성경 공부, 교제, 말씀 통독, 기도회, 찬양 등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향하여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딤후3:14)는 말씀이 실천되는 수양회가 되어야 한다.

장로칼럼

하나님의 섭리

김은호 장로
(예배위원장)

역사(歷史)는 적절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계기를 통하여 창출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2:4)는 말씀에서 진리를 발견한 루터는 교회에서 편파부를 폐는 것에 절대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만들어 항의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

오순절,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곳이 진약시대 교회의 초지(敍地)가 되었으며, 1953년 9월 6일 김창현 원로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명덕 권사님 댁에 모여 예배드린 것이 오늘의 충현교회를 이루게 되었듯이, 그 시대마다 예비하신 인물들을 통하여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다.

구약시대에는 인물을 구원하시게 위한 하나님의 경륜에 포세 율법에 의한 생명과 제사법을 통하여 나타났고, 복음(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히 세상에 오셔서 교회의 터를 닦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나타

났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세우신 복의 기관이요 구원의 기관인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들을 통하여 바울에게, 바울을 통하여 칼빈에게 전수되어 우리에게까지 이어온 순수한 복음주의적인 기관이어야 하고 예배와 성례 의식과 권징을 바로 행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교회가 어떤 특징인의 교건주의에 의하여 사유화되거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사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 원리를 망각하고 상실함으로써, 오늘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 본연의 사명과 빛을 잃어가고 사회의 조소와 비방을 받게 되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해 하반기, 우리 교회는 큰 풍랑을 겪었다. 사남고 무성계 출렁이던 격랑! 정말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부족한 지혜와 판단과 결단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엄습해온 엄청난 시련이었다. 그러나 진노 중에도 공물을 배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 흉흉하던 풍랑을 잠재워주셨다. 그리고 새 당회장 신성중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때때로 지향적인 새 비전을 주시므로써 우리로 하여금 새 역사를 펼쳐가게 하셨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렘3:11)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권능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언뜻보기에 그 풍랑으로 인하여 교회는 일부 흐트러졌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일하던 많은 동역자들과 성도들을 잃는 아픔이 있었으니, 잠을 자다가도 생각하면 섭섭하고 길을 걷다가도 생각하면 마음

허전함을 어찌 글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제는 다시 일어나야겠다. 우리는 이제 피차에 입은 상처를 짜매주고 격려하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제21:5) 앞에서 새 노래를 불러야겠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4:22-24)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선하고 새로워져야겠다.

또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만민에게 평등해야 할 것이다. 인위적이고 편협적이고 행사 중심적이었던 구습을 벗어버리고, 강한 자와 약한 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배운자와 배우지 못한 자의 구별없이 그리스도의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충현의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세워주며, 용서하고, 협력하고 화목하는 공동체로 세워져야겠다. 반목과 질서와 나를 주장하는 교만의 옷은 모두 벗어버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의 옷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마5:1)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의 소명 의식을 다시 찾아야겠다. 그리고 내태함과 무관심과 타성에 젖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겠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잠27:1)라고 하시는 교훈대로 지구촌의 움직임에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가는 이때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광대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하나로 묶어 뜻을 향하여 열심히 경주해가야겠다. 복음화된 조국 통일을 행하여, 21세기의 역사를 향하여...

다음호 칼럼은 순둥순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제26대 장로 피택 위한 명단

◆ 이곳에 게재된 장로후보명단서
열(번호순)은 지난 정기당회에서 공동
의회 결의에 의거하여 장로들이 투
표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명 **김여순**
번호 **1** 나이 60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장년1부부장, 예배위원,
복수전도회장, 지역장



성명 **임봉남**
번호 **2** 나이 67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재정위원회, 안
수집사회장



성명 **강 협**
번호 **3** 나이 66
직분 협동장로
봉사부서 전도위원(농어
촌전도), 지역장



성명 **최기홍**
번호 **4** 나이 58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예배위원, 전도
위원



성명 **임무천**
번호 **5** 나이 51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고등부부장, 지
역장



성명 **김형선**
번호 **6** 나이 49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장년1부 부장



성명 **이관섭**
번호 **7** 나이 56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찬양감독, 아멘
찬양대지휘자



성명 **이하영**
번호 **8** 나이 60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장년2부부장, 지
역장, 전도위원



성명 **정홍식**
번호 **9** 나이 44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대학부부장, 지
역장



성명 **강봉수**
번호 **10** 나이 47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소망부부장, 지
역장



성명 **이종섭**
번호 **11** 나이 57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지역장, 가브리
엘찬양대부대장



성명 **진홍용**
번호 **12** 나이 50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재정위원회, 베
드로회장



성명 **김인관**
번호 **13** 나이 61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장년3부부장, 지
역장, 예배위원



성명 **양종섭**
번호 **14** 나이 51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초등4부부장, 선
교실행위원



성명 **최차용**
번호 **15** 나이 55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사랑부부장, 지
역장



성명 **최명환**
번호 **16** 나이 54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재정위원회



성명 **황의만**
번호 **17** 나이 44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청년2부부장



성명 **박주한**
번호 **18** 나이 54
직분 협동장로
봉사부서 지역장



성명 **황영일**
번호 **19** 나이 46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중등1부부장, 지역
장, 선교실행위원



성명 **정정주**
번호 **20** 나이 50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안수집사회서
기, 인쇄실



성명 **박상준**
번호 **21** 나이 60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전도위원, 구역실행위원,
바울4교회부회장



성명 **안동현**
번호 **22** 나이 45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새가정부부장,
지역장



성명 **이갑재**
번호 **23** 나이 51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초등3부부장, 지
역장



성명 **고병국**
번호 **24** 나이 54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에바다부부장



성명 **이병옥**
번호 **25** 나이 59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지역장, 장년3부
교사



성명 **한송규**
번호 **26** 나이 50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초등2부부장



성명 **손철**
번호 **27** 나이 44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지역장, 의료전
도회장



성명 **주원홍**
번호 **28** 나이 66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일본어교육부부
감, 지역장



성명 **안중옥**
번호 **29** 나이 57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재정위원회, 바
울5지회장



성명 **박미련**
번호 **30** 나이 51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초등1부부장, 지역
장, 베드로2지회장



성명 **채수경**
번호 **31** 나이 52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경료대학부장, 차량
관리부원, 지역장



성명 **김한기**
번호 **32** 나이 43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청년3부부장



성명 **권명옥**
번호 **33** 나이 41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영아부부장, 지
역장



성명 **아인상**
번호 **34** 나이 56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예배위원



성명 **이승철**
번호 **35** 나이 51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기획실행위
원, 홍보실



성명 **김춘권**
번호 **36** 나이 47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지역장, 베드로1지 회부
회장, 초등6부부장



성명 **이동명**
번호 **37** 나이 46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초등6부부장, 지역장,
베드로1지회예전부장



성명 **임정우**
번호 **38** 나이 56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성명 **최윤덕**
번호 **39** 나이 51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탁아부부장, 지
역장